내년 제주도 살림 악화… 각종 사업 차질

내년도 총세입 올해보다 4079억 줄어든 4조5674억
순수 가용예산도 5349억 ↓… 재정여건 악화 불가피
도, 강력 세출구조조정 예고에 "경기 고려 안해" 지적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징수 여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제주지역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른 순수 가용재원 급감이 예상되면서 보조·자체사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총세입은 전년 4조9753억원보다 4079억원이 감소한 4조5674억원으로 추계됐다. 도는 지방세 1086억원, 지방교부세 35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01억원 등의 세입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경직성경비 등 기본 재정수요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보조·자체사업 재원인 순수 가용재원은 전년 대비 5349억원 감소한 1631억원으로 전망됐다. 그만큼 보조·자체·신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는 순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와 같이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잠정 24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비목별 세출감축을 비롯해 부서장이 예산 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편성권을 부여하는 부서 자율편성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여력이 있음에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무리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 때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감액 편성하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전국 대비 발행 비율이 낮은 지방채 발행이나 공유재산 매각 등을 검토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1년 예산편성과 연계한 내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내년 코로나19 대응, 포스트코로나 대비, 정부·제주형 뉴딜 등 시급성과 중요도 높은 미래 대비 과제를 도정에 반영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인프라·복지서비스 확장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와 공약 및 현안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입 등 재정여건 악화로 기존·신규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게 된다. 오은지기자

제주에 질병대응센터 출장소 생긴다

정부, 어제 개정안 의결
권역별 센터 기능 수행

정부가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서울)·충청권(대전)·호남권(광주)·경북권(대구)·경남권(부산)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제주에는 질병대응센터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제주에는 출장소를 두기로 했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총 155명 규모다. 각 권역별로 조직 규모는 20~3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주출장소에 배치될 인원은 10명이며 출장소라고 해도 기능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9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다시 바다로" 태풍이 지나간 8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서 어민들이 덤장을 설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된다.

8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층에 한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특수식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94개에서 103개로 ▷만19세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환자 특수 조제분유 등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7개에서 28개로 증가하는 등 지원 대상도 모두 1038개 질환으로 늘었다.

지원 신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760-6243. 현영종기자

"소음피해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

도의회, 개정조례 입법예고

제주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구 의원인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강성균(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을 비롯한 의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항에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공항이용료는 국내선 편도 기준 1인당 4000원이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 시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예산으로 연간 약 3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횟수(편도)를 3.6회로 산출한 것이다. 소음대책지역주민(75웨클 이상)은 2018년 5월 기준 2만2805명이다. 오은지기자

"3년째 적자 쌓이는 테크노파크 재무구조 바꿔 수익성 높여야"

도의회 정책연구실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테크노파크의 적자구조 장기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8일 발간한 '제주테크노파크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주제 현안보고서(제15호)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11억, 2018년 -9억원, 2019년 -22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자구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테크노파크의 공익적 기능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재단법인이라는 특수한 경영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인 적자나 대규모 적자 경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자체 지원비율(행안부 자료)은 63%로, 전남(4.5%), 전북(37.2%), 대구(44.6%) 등 타 지역보다 높아 향후 민간기업부문 수입과 자체수입 비중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즉, 수익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실은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기관장과 임직원의 보상체계에 대해 경영성과를 더욱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매년 500억 이상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테크노파크가 그 설립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지자체 차원의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기업과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여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취약한 사업구조를 보다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올해 첫 오존주의보

제주지역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권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존주의보 발령 당시 제주권역 오존 농도는 0.125ppm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고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은 자제하는 등의 시민행동요령을 당부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0ppm 이상일 때 발령한다.

대기중의 오존(ozone: O_3)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지게 되면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유독물질이 된다. 이태윤기자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0-52호

도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도민과 함께 공동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도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제주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0년 도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 **참여대상** : 제주도민 누구나 / 개인, 팀 가능
○ **공모내용**

분 야	제안내용
사회적가치 향상	- 사회공헌 사업 제안 - JECO 봉사단 활동 제안 - JECO-발전단지 주변지역* 상생방안 제안
신재생에너지 확산	- 신재생에너지 교육 컨텐츠 제안 -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시설물/컨텐츠 제안

*발전단지 주변지역 : 가시리, 김녕리, 동복리, 북촌리, 신창리, 행원리

※ **제외대상**

▸ 공사의 경영목표, 사업범위에 벗어나고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
▸ 단순 공연·축제·행사성 사업 및 현금, 현물 등 단순 지원요구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등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다음연도 예산투입을 전제로 총사업비의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
▸ 공사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 ▸ 기타 단순건의, 민원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 참여방법

○ **제출서류** : 공모참가신청서, 제안설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공모전 참가 서약서
※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주에너지공사 신사업기획단 앞
- 전자우편 : e-mail(IDEA@jejuenergy.or.kr) 송부

3. 작품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필요성	· 주민참여사업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여부	20
효과성	· 사업효과가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	20
달성도	·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 여부	20
창의성	· 기존사업과 모방 없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인지 여부	20
지속성	· 유관기관과의 협업 가능성, 도민 동참 가능성	20

○ 시상계획

구 분	시상내역	인 원	훈 격
최우수상	상장/상금(500,000원)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우 수 상	상장/상금(300,000원)	2(분야별 1명)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장 려 상	상장/상금(200,000원)	4(분야별 2명)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 제안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되거나 없을 수 있음(심사시 결정)

4. 공모일정

구 분	추진일정
공 고	2020. 9. 4. ~ 9. 29.
접 수	2020. 9. 7. ~ 9. 29. 18:00 까지
심사발표 시상	2020. 10월 중

5. 기타사항

○ 제안내용이 표절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 공모전 제출 아이디어(제안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당선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 책임
○ **문의처 : 제주에너지공사 신사업기획단 (☎064-720-7443)** ※ 우리 공사 업무시간에 한함(09:00 ~ 18:00)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윈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